



느리게 혼자 읽는 즐거움을 위하여

- 전자책에 익숙한 세대에게 『종이책 읽기를 권함』 (김무곤, 더숲, 2011)

---

저자                      김은정  
(Authors)

출처                      [대학작문 , \(5\)](#), 2012.12, 213-222 (10 pages)  
(Source)                  [Korea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 \(5\)](#), 2012.12, 213-222 (10 pages)

발행처                   [대학작문학회](#)  
(Publisher)              The Korean Conference o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74364>

APA Style                김은정 (2012). 느리게 혼자 읽는 즐거움을 위하여. 대학작문, (5), 213-222.

이용정보                서울대학교  
(Accessed)              147.46.179.\*\*\*  
                              2016/10/31 14:1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느리게 혼자 읽는 즐거움을 위하여

—전자책에 익숙한 세대에게 『종이책 읽기를 권함』(김무곤, 더숲, 2011)—

김은정\*

자칭 책 좀 읽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책 읽기 방식이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책을 깊이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을 충분히, 그리고 은밀하게 만끽하고자 하는 욕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책방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소위 책 읽기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책들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 그리고 그런 책을 오프라인에 끼고 책방을 나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런 책들은 예비 독자에게 하나같이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만큼 빨리, 많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답한다. 이런 답은 오히려 독자

---

\* 숭실대학교, ssudkej@ssu.ac.kr

를 책읽기의 두려움 앞으로 내몬다. 그만큼의 책을 읽지 않았거나, 책을 읽는 방법을 모른 채 어른이 되어 버린 예비 독자들은 자신이 읽었던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를 헤아려보곤 그만 더럭 겁이 난다. 이런 종류의 독서계발서가 나열해 놓은 책의 목록 앞에서 자신의 끄적한 무지 외에는 더 발견할 것이 없는 예비 독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성공에의 경주를 위해 책을 읽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엇을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책 읽기를 강조하는 책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고전이나 몇 백 년 전 책들의 제목을 나열해 놓고는 무조건 읽으라 한다. 많이 읽으라 한다. 남들이 읽는 책을 읽으라 한다. 유명한 책을 읽으라 한다. 책 속에 있는 자양분을 뽑아내라고 한다. 독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예비 독자들을 자극한다. 또한 그 책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난리를 떤다.

이런 말에 현혹된 예비독자들 대부분은 책을 읽어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거나 대인관계에서 승점을 차지하거나 또는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데에 독서의 목적을 두고 있다. 다분히 자본주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자기 투자이다. 물론 책을 읽어 둠으로써 사회적 성공에 대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읽어서 쓸모없을 것에 책값과 읽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반경제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렇듯 인생의 성공을 위해 적금이나 예금을 하듯이 책을 읽어두려는 심리가 오히려 책읽기를 두렵게 하고, 책 읽기를 부담스럽게 하고, 책의 선택을 천편일률적이라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책읽기를 스스로와 깊이 상의하지 않는다.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활동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마련되고 실행되지 않는다. 결국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미 읽은 책에 대한 추억을 반추하기 보다는 미처 읽지 못한 책에 대한 아쉬움과 모르고 넘어갈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독서를

마친다.

김무곤의 『종이책 읽기를 권함』은 이러한 책 읽기 세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책 읽기의 현대적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위 책 읽기의 쿠데타이다. 이 책은 『종이책 읽기를 권함』이라는 제목에서처럼 전자책에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종이책’에 주제를 한정하지 않는다. ‘종이’가 가지고 있는 질감과, 책을 넘기는 순간 독자의 손끝에 전해지는 그 투박함, 활자와 활자 사이의 여백, 그리고 행과 행을 이어주는 여운을 ‘종이책’에서 느끼기를 기대한다. 느리게 지나가는 시간만큼 팽팽하게 당겨져야 하는 책과의 신경전을 즐기기를 그는 독자들에게 요구한다. 그것이야말로 독서가 주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고, 책이 독자에게 주는 선물인 ‘지성’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까짓 영화 안 만들면 어때”

알프레드 히치콕의 말을 빌려서 시작하는 저자의 ‘독서’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이어진다.

“독서도 마찬가지로. 그까짓 책 안 읽으면 어때. 독서인이 모두 곧 교양인이요, 인격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환상이다.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굉장한 권위주의자라든지 사기꾼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독서가 곧 교양과 인격의 척도라는 교조주의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일이야말로 즐거운 독서, 책과의 평등한 사귀의 시작일 것이다.”

저자는 『종이책 읽기를 권함』을 통해 더 이상 책과 소통하지 않는 시대, 책과 하는 대화가 아닌, 책으로 하는 대화를 갈망하는 세대에게 책읽기의 ‘쓸모없음’에 대해 알려주려고 한다. ‘전자책’을 넘어 ‘전

자’사전과 ‘전자’ 기기에 익숙한 현재의 세대들에게 ‘읽기’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며, 책 읽기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그리고 ‘읽기’를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 준다.

## 1

그의 문체는 자기 고백적이다. 간결하고 짧으며 철저히 개인적이다. 대중 앞에서 책 읽기의 성공 사례를 선포하거나 책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을 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종이책 읽기를 권함』이 내포하고 있는 주제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장광설은 이 책에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 책은 흔한 독서계발서처럼 ‘필독도서’라는 명목으로 유명한 책의 제목을 나열하지도 않았고, 책을 많이 읽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예를 늘어놓아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책의 기본 성격인 지식의 향연을 떠벌리지도 않는다. 독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대단한 방책을 알려주는 것 같은 과장도 없다. 책의 표지에 작은 글자체로 써 놓은 문장 한 줄이 그래서 이 책의 성격과 방향을 대표한다.

“내 이 세상 도처에서 쉴 곳을 찾아보았으되, 마침내 찾아낸,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더 나은 곳은 없더라”

인용문은 토마스 아 캠퍼스의 유명한 문장이다. 김무곤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서문에서 이 문장을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했던 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저자의 말처럼 책을 읽는 모든 자들은 책이 있는 구석방을 원한다. 그곳이 책을 읽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책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공감한다. 타인에게 한 치의 간섭도 인정하지 않는 공간, 적당히 협소해서 책을 읽는 자아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끼어들 수 없는 공간, 화려한 물질문명이 배제되어 있어서 세상의 상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공간, 겨우 책 속의 활자와 읽는 이만을 어렵פות이 밝혀 줄 정도의 햇빛이 존재하는 그 구석방에서 독자들은 책과 마주하고, 소통하고, 자아를 발견한다. 마치 파랑새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정신의 쉼 곳은 그리 거창한 곳이 아닌 먼지 쌓인 책이 있는 구석방이면 족하다.

저자 김무곤은 『종이책 읽기를 권함』에서 독서의 목적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 그런데 이 방법이라는 것이 좀 독특하다. 흔히들 고전이라 말하는 이러한 책들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천재들의 책 읽기 방법을 흉내내라고 말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고 읽으라 하지 않고,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가리라 하지 않는다. 독서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범사회적 윤리를 깨우치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독서의 목적에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김무곤은 이 책에서 그만의 책읽기 방법에 대하여 프랑스의 교사이자 작가인 다니엘 페나크가 밝힌 독서론인 『소설처럼 (Comme Un Roman)』에서 밝힌 ‘독자의 10가지 권리’를 인용하고 있다.

“첫째, 읽지 않을 권리. (나는 기분이 좋지 않거나 장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하튼 읽고 싶지 않을 때는 안 읽는다)

둘째, 건너뛰어서 읽을 권리. (새로 발간된 전공 서적을 읽을 때 내가 잘 쓰는 수법이다)

셋째,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괴테의 『파우스트』는 고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다 못 읽었다)

넷째, 연거푸 읽을 권리. (내가 좋아하는 로르카의 시집은 하도 여러 번 읽어서 이제는 거의 다 외운다)

다섯째, 손에 잡히는 대로 읽을 권리. (이현세의 만화를 읽다가 갑자기 막스 베버를 읽은들 어떠랴)

여섯째, 작중 인물과 자신을 혼동할 권리. (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으면 햄릿이 되고 또 가끔 홍길동이 되기도 한다)

일곱째, 읽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권리. (침대에서 읽고, 기차간에서 읽고, 수영장에서도 읽는다)

여덟째,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읽을 권리. (내 특기다)

아홉째, 소리 내어 읽을 권리. (흥이 겹거나 감동했을 때는 저절로 소리가 난다)

열 번째,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 (책 읽기의 장점 중 하나는 그 즐거움을 혼자만의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덧붙여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옴으로써 저자 김무곤 자신의 책읽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다.

“책에서 얻은 다른 사람의 사상은 타인이 먹고 버린 쓰레기다. 타인이 입다 버린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책 읽기를 통해 얻는 이익이 아니라, 천천히 읽기, 혼자 읽기, 마음대로 읽기, 내키는 대로 읽기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타인을 오해와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책과 대화하고 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책과의 소통을 통해 타인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느리게 다가오고 천천히 느끼는 공감의 감정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하고 폭넓은 잣대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가장 쓸모없는 독서가 가장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지고한 생산의 과정이고, 그 오랜 시간동안 전통을 지켜온 대학들의 독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의 방법이 쓸모있기 위한 부모의 독서 지도법에 대해 알려준다. 책값을 넉넉히 주고, 책이 많은 공간에 아이를 방치할 것, 그리고 제 맘대로 책을 골라

읽으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문하며 독서를 그만 둘 때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 그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독서 지도라고 한다. 아이가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해 직접 책방에 가고, 책 읽을 순서를 정해주며, 책을 읽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모두 결정해 주는 요즘의 극성맞은 부모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독서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바로 저자의 독서의 목적이 있다. 저자는 독서가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되고,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독서가 책과 나만의 오롯한 대화가 되기를, 책과 나눈 기쁨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를, 책과 함께한 그 시간, 그 공간 안에서의 추억이 독서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한다. 자신의 책 읽기는 그랬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그의 과거 독서 여정을 소소히 그려내면서 자신의 일상 하루하루에 얹힌 책과의 추억을 반추한다. 중국 작가 쑤통의 『紅粉』과 서대문 지하다방의 쌍화차 냄새, 사람이 적은 날의 신촌 미네르바 카페, 그리고 저작에게 기분 좋은 긴장감을 주었던 화장실에서의 독서를 이야기한다. 그의 또 다른 여성상이 발견되던 날, 그가 그는 자신의 책과 교감함으로써 느꼈던 공감과 흥분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다.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책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는 책을 읽는 행위 속에서 ‘책임감’이란 말을 온전히 삭제하려고 애쓴다. 쓸모없는 독서, 제멋대로의 독서, 나눌 수 없는 독서가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저자가 정의하는 ‘진정한 독서’이다. 독자 자신의 지극하고 오롯한 즐거움을 겨냥한 독서, 천천히 읽고, 읽다가 잠들고, 다시 깨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책과 함께 기억하는 공간, 사건과 여운들은 책을 읽고 있던 그 시간을 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감동과 추억이며 동시에 개인의 삶의 궤적이다. 이런 면에서 그의 독서는 매우 자유롭고 감정과의 순간적인 교감인 동시에 무한한 현재의 재생산이다.



이 책의 구조나 체제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체제가 모두가 독자를 위한, 독자의 독서를 돕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책의 모든 왼쪽 페이지는 저자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반면 모든 오른쪽 페이지는 저자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인용하게 되는 책과 저자에 대한 서지학적 자료, 그리고 유명한 인물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독자들은 책을 읽어가면서 그 곳에 인용된 사람이나 역사, 책에 대한 것을 몰라서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을 더할 필요도 없다. 책을 읽다가 그만, 자신의 무지에 지쳐서 책을 내던져버릴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독서가 복잡한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박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싶은 저자의 마음은 표지에 놓인 한 편의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구스타프 아돌프 헤니히(Gustav Adolf Henning)의 작품 “독서하는 소녀(Girl Reading, 1828)”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녀는 두 손으로 책을 든 채 오직 자신이 읽고 있는 작은 책 한권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편안하고 온화한 그 표정에서 지식을 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주한 눈길과 불안한 마음은 읽을 수 없다.

책을 위한 책, 독서를 권장하는 책들은 매우 많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책들은 대다수가 매우 많은 양의 지식과 교양을 켜켜이 쌓아놓아서 도저히 한 번에 그것을 삼킬 수도 없고, 하나씩 재료를 내려놓아서 그 맛을 음미할 수도 없다. 이 썸 되면 독자들은 이 한 권의 ‘교양압축사전’과도 같은 책을 읽기 위한 예비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책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을 알기 위해서 다시 인터넷을 뒤적이고, 또 다른 페이지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가 쓴 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그 인물과 책에 대해 요약한 글을 읽어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독자는 이미 처음 시작한 독서의 마음도 무

너져 내리고 본래의 책을 한 번에 읽어 내리기 위한 긴장감도 느슨해져 버린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책은 다시 무거운 마음속의 숙제가 되고 짐이 된다. 해결하지 못한 문젯거리로 전락한다. 이것이 최근 독서를 위한 독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책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지식에 체하는 독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저자는 이러한 독서의 현재적 모습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듯하다. 독서할 요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 독서를 두려워하는 최초의 독자들에게 해박한 그의 지식을 나누어 줌과 동시에 지식의 망망한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데에 이 책 한 권이면 족하다는 그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3

저자 김무곤은 독서의 역할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독서 방법과 함께 변해 온 사색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 김무곤은 독서의 방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 온 목표가 오늘날의 독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중세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독서가 작가의 문장을 암송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읽기였다면, 그 이후의 읽기는 작가와 독자와의 소통, 이해와 이해시키려는 노력과 의지, 그리고 온전히 책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독자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궁극적인 독서는 독자의 이성적 노력에 의한 독서, 목표를 향한 도구적 독서, 독서의 효과를 의식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독서가 아니다. 느끼고, 맛보고, 철저히 개인의 역사와 비밀이 되기 위한 감정적 독서, 자유로운 독서, 소통의 독서이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와 관련한 교양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말 그대로 ‘교양’ 있는 지식인을 만들기 위

해 많은 고전들과 다양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보고, 읽고, 느끼는 훈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최근 ‘교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에게 권장되는 읽기의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최근 대학 교양 교육의 기본인 읽기 쓰기 등의 교과는 궁극적으로 ‘소통’이 아닌 ‘표현’이라는 일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토론, 퍼포먼스, 비판, 그리고 논쟁’이라는 일련의 표현과정을 통해 극성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저마다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하다. 학생들은 어디선가 읽고 들은 것을 이용하도록 학습된다. 철저하게 타인에 의해 의식되는 ‘자아’에 몰입되어 있는 요즘의 ‘소통 방식’에 익숙해진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저마다의 독서에 속도를 가할 수밖에 없다. 기능적 읽기만이 가능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위해서 독서를 하고, 수업을 통해서 잘못된 독서의 방식을 배운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이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 소통의 대상, 그리고 소통의 방법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문 목적 책 읽기의 의의와 ‘지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곧 사회인이 될 이들 대학 초년생들에게 ‘책’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사는 법을 안내해 주는 지도가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